

#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대학의 역할 모색

국가거점국립대 총장협, 제1차 고등교육 정책 포럼... 국가거점대·교육부·국회·인수위 관계자 등 고등교육 방향 찾기

국가거점국립대학교총장협의회(회장 김동원)는 30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2022년 제1차 고등교육 정책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대면과 비대면(강원대유투브 http://www.youtube.com/knu1947)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진행된다.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대학의 역할'을 주제로 진행되는 이날 포럼은 코로나19 장기화와 학령인구 감소, 4차 산업혁명을 비롯한 교육환경의

도전적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대학의 미래와 대한민국의 고등교육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포럼에는 김현영 강원대 총장과 김동원 전북대 총장, 조혜진 국회 교육위원장, 김병준 제2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 정종철 교육부 차관, 이기봉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을 비롯해 전국 10개 국가거점국립대학교 총장, 국회·교육부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김동원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 나라를 대표하는 10개 국가거점국립대학은 지역과 국가 균형발전을 이끌어야 할 막중한 책무가 주어졌다"며 "오늘 포럼이 선진국형의 고등교육 체계 구현을 향해 국가가 큰 틀에서 지원하고, 지역적·기능적으로 특화 성장하는 대학 발전 전략 마련을 위한 새로운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을 주관한 김현영 총장은 환영사에서 "인구와 자원의 수도권 집중을 막기 위한 최선의 해결책은 지역대학을 육성하는 것이다"며 "국가거점국립대를 세계적인 수준의 연구중심대학으로 육성하고 지역에 뿌리내리고 있는 강소(強小)대학의 경쟁력을 키운다면, 이를 동력으로 특화 성장하는 대학 발전 전략 마련을 위한 새로운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정은성 기자

## 도교육청, 학교급식

### 현장확인단 연수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30일 8층 회의실에서 학교급식 현장확인단 연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학교급식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 도내 교육지원청 업무담당자를 비롯해 학교급식 위생·안전 현장확인단에 참여하는 현장확인단(학부모·소비자감사단) 등 43 명이 참석한다.

주요 연수 내용은 학교급식 위생·안전관리 기준, 현장확인자 준수사항, 학교급식 현장확인 세부 요령 등이 다.

도교육청은 이번 교육을 통해 현장확인단의 전문성을 높이는 동시에 학교급식 현장확인 의 실효성과 객관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급식에 대한 꼼꼼한 사전 현장확인으로 식중독을 예방하고,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한다"며 "위생적이고 안전한 학교급식이 운영될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하게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서거식 전북교육감 예비후보는 29일 전북교육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본인의 교육철학과 경영역량, 도덕성 등을 공개했다.

## '교육감 예비후보 서거식을 검증하라'

전북교육청 기자회견서, 서 후보의 교육철학·경영역량·도덕성 등 공개

노무현·이명박 정부의 도덕성 검증 통과... 각종 감사 등 통해 흠결 없음 밝혀

"교육은 상대 존중 배려로 시작, 남은 기간 건강한 선거문화 만드는데 동참해달라"

교육감 예비후보 서거식을 검증하라!

서거식 전북교육감 예비후보는 29일 전북교육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본인의 교육철학과 경영역량, 도덕성 등을 공개했다. 나아가, 경쟁 후보에 대한 비방이 아닌 존중과 배려로 건강한 선거문화를 만드는데 모든 후보들이 함께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먼저 서 예비후보는 "교육감은 교사가 아니라 전북교육 전반을 이끌어갈 교육 행정가이자, 경영자인 만큼 교육철학과 경영역량, 도덕성을 검증해야 한다"면서 후보 검증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에 그는 "교수 시절 민주회교협 회의 활동을 하면서 학생운동을 하다 학교를 벗어난 학생 가정형편으로 학업을 중단한 제자들을 재입학 시켜 학비를 주선하고 진로를 살렸다"면서 "그들 중 몇몇은 사법고시에 합격해 법조인으로 활동 중"이라고 학생중심 교육 실천사례를 공개했다.

특히 "법대 부흥의 미션을 받고 추대됐던 법대학장 시절에는 학생들의 학습 지원을 위해 아내의 적금까지 털어 수천원을 발전기금으로 내왔으며, 이 돈은 한 달여 만에 2억여원의 기금을 모은 마중물이 됐다"면서 "기숙사와 학습실 개선 등 다각적인 노력으로 호남·충청지역 최다 사법고시 합격생을 배출했고, 이 같은 성과는 전북대

가 로스쿨을 유지하는 결정적 요인이 됐다"고 설명했다.

서 예비후보는 총장 시절을 회상하며 "당시 전북대는 각종 사건·사고로 총체적 위기에 빠져 있었다"며 이후 뚜렷한 비전과 목표, 치밀한 전략 수립, 끊임없는 소통으로 전 대학 구성원과 이뤄낸 성과들을 나열했다.

대표적으로 취임 당시 전국 40위권의 전북대학교를 10위권으로 끌어 올렸으며, 아시아 최대 인수공통전염병 연구소(419억원 규모)를 시작으로 LED융합기술지원센터, 고온플라즈마 응용연구센터(400억원대 규모), IT 융합 차세대 농기계기술지원사업(500억원 규모), 미국 로스알라모스 국립연구소 등 수천억 연구사업을 파했다. 이를 통해 교육부 주요 재정지원사업 6관왕(2014년), 대학혁신 선도사업 1위, 잘 가르치는 대학 전국 1위(2014년), 재학생 만족도 평가 전국 1위(한국표준협회 2012·2013년) 등을 차지했다.

또한 교수들의 연구활동 분위기를 조성해 교수 1인당 연구비 수주액, 연구비 총액 모두 국립대 1위(국립대 법인 제외)를 차지했다. 교수연구 질적 수준도 전국 종합대 3위(라이젠 랭킹), SCI(과학기술논문수록지) 논문 증가율 전국 1위(2014년)에 전북대를 명문 거점국립대학으로 성장시켰다.

이후 연구활동이 활발해지면서 발생한 일부 부작용에 대해 서 예비후보는

"자율성이 존중되는 교수사회의 특성 등으로 인한 감사·감사 기능에 제도적 한계가 있어 개인적으로 이뤄지는 연구비 횡령이나 부당 집행을 막지 못했다"면서 "연구활동이 활발한 카이스트나 서울대 등이 연구·행정 청렴도에서 낮은 평가를 받는 것처럼 전북대 경우도 그랬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서 예비후보는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청와대의 까다로운 도덕성 검증을 통과해 총장이 됐고 총장 책임 중에도 여러 차례 감사위원의 감사, 교육부의 감사에서도 단 한 건의 인사 비리나 금전 비리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북대 역사상 선거로 뽑힌 유일한 재선 총장"이라며 "선거 과정에서 능력은 물론이고 조그마한 비리라도 일어난다면 결코 다시 선택받을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그는 "저는 사사로운 이익에 단 한 번도 눈을 돌려본 적이 없었다"며 "같은 직분에 혼신의 힘을 다했고, 지난 교육감 출마 당시에도 망설임없이 교수직을 사퇴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서 예비후보는 "교육은 상대에 대한 존중과 배려로부터 시작해야 한다"면서 "남은 선거운동 기간 상호 존중하는 정책대로 건강한 선거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후보들 모두가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은성 기자

## "사회복지사 인권·권익 신장 사회 공동의 관심과 노력 필요"

천호성 교육감 예비후보, 교육·사회복지 연계 강화 공약

천호성 교육감 예비후보는 사회복지사의 날을 맞아 "그간 지역사회 돌봄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가적 역량을 바탕으로 헌신을 해온 사회복지사들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우리 사회가 사회복지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많은 분들의 소중함을 깨닫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천 예비후보는 학교교육 현장에서도 다양한 분야의 복지 전문가들이 함께 하고 있고, 아동·청소년의 교육활동에 있어 복지의 중요성이 더욱 커져가고 있는 만큼 교육과 사회복지의 연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을 강조하면서 몇 가지 공약도 제시했다.

먼저, 학교교육 차원, 직장교육 차원에서 사회복지 현장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사회복지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복지교육을 중요한 교육 영역으로 다루겠다.

둘째, 지역사회 내 다양한 사회복지 기관 및 사회복지사들과의 연계·협력을 강화해 학생들이 결핍으로 인해 학교생활의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교육복지 체계를 보다 견고히 하겠다.

마지막으로, 교육 현장에 종사하는 복지 업무 종사자들에 대한 업무 환경을 세심하게 살펴, 그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다.

/정은성 기자

## "전북대의 실추된 명예, 서 후보가 책임져야"

황호진 교육감 예비후보, 'MB집사' 김백준 석좌교수 임명 등 질타 새정부 교육정책에 대해 "MB시대로의 회귀라면 당당히 저항"

황호진 전북교육감 예비후보는 29일 전북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BS '시사기획'에서 보도된 'MB집사' 김백준의 전북대 석좌교수 임명과 3억6,000만원 거액 수수 건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황 예비후보는 "최근 전북교육도 MB시대로 돌아간 듯하다"며 "MB집사 김백준의 전북대 석좌교수 임명 경위와 강이나 연구 활동도 없이 6년간 매년 6,000만원씩 총 3억6,000만 원을 지급 받은 것에 대한 KBS 보도 내용에 대해 서거식 예비후보는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당시 전북대 총장이던 서거식 예비후보의 학교발전을 위해서였다" "전북대의 국가사업 추진과 국비 확보를 위해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문역할을 해줘서"라는 답변에 대해 "이는 스스로 MB정부에 로비를 했다고 자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황 예비후보는 "서 예비후보가 그토록 자랑했던 전북대의 성과가 소위 '로비'에 의한 것이라고 전국적으로 알려졌고 이후 전북대의 명예가 땅으로 떨어졌다"며, "전북대 구성원과 도민들께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MB정부의 막후 실세에 대한 '로비'로 성과를 만들고, '로비'로 오

여된 대학의 실추된 명예에 대해 서거식 예비후보는 책임져야 한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황 예비후보는 "혹색선진, 마타도어와 검증은 분명히 다르다"며 합당한 근거와 팩트에 기반한 무한검증을 제기했다. 그는 "교육감 선거는 정당후보와 다르게 예비 검증 없이 검증은 온전히 언론과 유권자의 몫이다"며, 능력과 도덕성 가치관 교육관의 무한검증을 위한 많은 토론회 개최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한편 그는 오는 4월5일 KBS 교육감 후보 토론회에서 서거식 예비후보의 불찰을 문제 삼으며, "무엇이 두려운가? MB집사'와의 관계가 밝혀질까 피하는 것인가? 최근 제기된 소위 청렴대상 셀프수상 의혹이 드러날까 피하는 것인가, 아니면 아직 전북교육을 이끌어갈 교육정책이 미진해서인가"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 예비후보는 피하거나 도망가려 하지 말고 당당히 도민 앞에 나서길 바란다. 그것이 주권자인 전북도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질타했다.

이날 황 예비후보는 윤석열 인수위와 새 정부 교육정책에 대한 우려도 전했다. 그는 "윤석열 인수위에서 MB 시절 교육과학기술부 시절이 떠오른다고"며 "선택과 집중이라는 이름으로 특권교육을 정당화했던 MB시대로의 회귀라면, 우리 전북교육은 당당히 맞서 저항하고 막아낼 것이다"고 밝혔다.

/정은성 기자



## 원광대 구성원들, 대학발전

### 기금 릴레이 기부 이어져

원광대학교 구성원들의 대학발전기금 릴레이 기부가 계속되고 있다.

원광대는 노준석(건축공학과) 교수가 대학발전기금 400만원을 기탁했다고 29일 밝혔다.

또한, 한약학과 학생들로 구성된 동아리 실습한약국 회원들이 300만원을 대학 측에 전달했다.

노준석 교수는 오는 2046년까지 친기업형·시민개방형으로 추진하는 캠퍼스 마스터플랜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노 교수는 "학교시설 노후화 및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마스터플랜 빌딩을 구성원과 함께 고쳤다"며 "한 걸음의 시작을 위해 발전기금을 기탁하고 어려움 속에 구성원 모두가 하나 되어 원광대의 봄이 오는 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약학과 학생들의 전공지식 함양과 경험 습득을 위해 만들어진 실습한약국은 성화탕에 과일즙을 섞어 만든 음료 '성화행소'를 만들어 이벤트 형식으로 학생들에게 판매할 수익금을 대학 발전기금으로 기탁했다.

실습한약국장 장은진 씨는 "코로나19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조그마한 보탬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실습한약국 운영비 300만원과 성화행소를 같이 기부하게 됐다"며 "전공과 관련된 과정을 직접 체험하고 동아리 활동을 통해 의미 있는 성과를 내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코로나 백신 접종, 나와 내 가족을 위한 일입니다

## 마음치유·생명지킴 운영학교 지원 위해

도교육청, 교육연극 인력풀 모집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마음치유, 생명지킴 운영학교 지원을 위한 교육연극 인력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교육연극은 역할극 등 연극활동을 통해 보다 실질적·효과적인 생명존중 교육을 진행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신청 대상은 교육연극 운영이 가능한 단체(4인 1조)로 ▲교육연극(역할극 운영) 참여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구성된 단체 ▲극단 등 연극활동 경력 3년 이상인 사람으로 구성된 단체 ▲

그 외 교육연극(역할극 운영)에 전문성이 인정되는 사람으로 구성된 단체 등의 요건 중 한 개 이상의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교육연극 참여를 희망하는 단체는 4월 8일까지 단체현황, 극단소개서, 주제관련 교육연극 학습계획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의 제출서류를 갖춰 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로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이메일(calia@jedu.kr) 접수하면 된다.

이후 도교육청은 전문성 및 역량, 단체소개서, 관련 경력 등을 평가한 뒤 4월 15일 선정대상을 발표할 예정이다. 선정된 단체는 단위학교와 연계해

자살(해)예방·학교폭력예방을 주제로 교육연극을 진행하게 된다. 또한 ▲학생들과 함께 교육연극 주제 관련 시나리오 작성 지원 ▲학생들의 교육연극 활동 위한 연가지도 ▲교육연극 주제 관련 학교(교사)와 교육방법 협의 및 운영에도 참여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그동안 교육연극 운영학교를 꽤 더러웠을 한 결과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교육과정 내에서 생명존중 교육을 통해 소외된 학생들에 대한 배려, 공감을 높일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이장호 군산대 총장, 새해림호 찾아 학생 안전교육 현황 점검

군산대학교 이장호 총장이 29일 군산대학교 실습선인 새해림호를 방문하고 학생 안전교육 현황 및 선박 안전상태를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군산대학교 새해림호 전용부에서 '정박 승선실습 및 항해실습' 중인 군산대 해양생산시스템전공과 마린엔지니어링전공 학생들과 학생실습을 지원하기 위해 상주 중인 교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했다.

올해 1월 군산항 다목적부두에 새해림호 전용부두가 완공됨에 따라 관련 학과 학생들이 현재 정박승선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3월 31일에는 제주

항 및 서해해역 해역 운항 실습에 나설 계획이다.

이장호 총장은 항해실습을 앞두고 새해림호를 둘러보며, 코로나 예방 수칙 사항과 선박 안전상태, 학생 학습 환경 등을 꼼꼼히 점검했다.

/군산=남현봉 기자